

제7문서

전문(前文)

1.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는 1953년 6월, 제38회 호헌총회에서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얻는 '복음의 자유'와 '신앙 양심의 자유'를 외치며 새롭게 출범하였다. 기장은 그리스도교의 전통과 개혁교회의 맥을 계승하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응답하며 4개의 신앙문서를 세상에 내놓았다. <교회교육정책>(1969년)과 <사회선언지침>(1971년)을, 1972년에는 한국 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신앙고백서>를, 그리고 1973년에는 <선교정책>을 채택했다. 이 4개의 문서를 토대로 1973년 전면 개정된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과 함께 기장의 형상을 구체화하였다. 기장은 <새역사 60주년 선언서>(2013년)에서 우리의 처음 정신을 '종교개혁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으로 확인했다.

2. 1980년대 들어오면서 급변하는 세계 상황 속에서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JPIC)은 세계교회가 관심하던 의제였다. 기장은 이를 자신의 선교 과제와 사명으로 인식하고, 1987년 제72회 총회에서 4대 문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제5문서>를 채택했다. 이어서 기장은 새역사 50주년을 기념하여 <희년문서>(2003년)를 발표하였으며 변화된 상황에서 '은총·생명·섬김'의 가치를 들었다. 기장의 문서들은 변화하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고백해야 하는 복음의 진리와 신앙의 정수를 밝혔던 등대였고,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묻고 대답하는 우리의 기도과 고백이었다.

3.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오늘의 세상은 세속화, 세계화, 탈이념화, 다문화, 다종교, 다인종, 중심의 다변화, 디지털혁명, 불확실성, 역사의 종말, 불평등, 이주민과 난민의 발생, 기후위기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성적인 쟁점¹⁾이 공동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전의 패러다임으로는 급변하는 오늘의 세계를 모두 담아낼 수 없다. 신약 시대 이후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곳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교회론의 원리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주교가 있는 곳에 있고,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찬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곳에 있으며,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곳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세계의 복합위기가 확대되는 이 시대는 이런 대답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중 어느 것도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마 25:40b)이라는 구절에 제시된 대답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은 어디인가를 묻고, 그곳에 함께 해야 한다.

1) 제108회 총회에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논쟁이 되어 '성적인 쟁점'으로 바꾸었다.

4. 하나님의 선교를 이 시대의 언어로 전환하고 보강하려는 세계교회의 노력은 ‘주변부로부터의 선교’(mission from the margins) 개념을 새롭게 발견하고, 주체가 아닌 타자, 중심이 아닌 변방, 차이가 아닌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신학적·선교적 패러다임 전환을 요청하였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주변부를 가장자리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여긴다는 인식과 통찰에서 나온 개념이다(눅 1:51~53). 이러한 흐름은 인간이 각자 타고난 존엄성에 대한 성찰과 연결되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 사역 후에 모든 피조물을 향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장) 하신 말씀에서 드러나는 창조의 선함과 환대에 대한 재발견이다.

5.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대를 살고 있다. 팬데믹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분별한 지배 의지가 유발한 재난이다. 생태계 파괴가 부른 인간 문명의 위기이고, 개발과 이윤으로 치닫는 경제 질서가 초래한 위기이며 이 질서를 뒷받침하는 화석연료와 이기적인 인간이 만든 문명의 부작용이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온 창조 세계가 신음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롬 8:22). 팬데믹은 지구 생명 전체를 염두에 둔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긴급히 요청한다. 또한, 팬데믹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모습과 약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탐욕적이고 약탈적인 자본주의 체제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 문제가 얼마나 큰 죄악이고 누적된 폐단인지 팬데믹 상황에서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 사회의 각양각색의 약자들이 코로나19로 초래된 사회적 재난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위협에 노출되었으며, 심지어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그동안 알고는 있었으나 말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치부가 온 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이것이 <제7문서>를 제안하는 오늘의 현실이다.

6. <제7문서>는 그동안 발표됐던 <제1문서>에서 <제6문서>를 관통하는 ‘기장성’과 ‘하나님의 선교’를 잇는 문서이다. 우리는 개혁신앙 전통을 계승한다. 개혁신앙은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며 개혁하는 교회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다음 일곱 가지 의제를 다루고자 한다. 1)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2) 교회의 위기와 기장성의 지속적 실천, 3) 차별 없는 사랑의 교회공동체, 4) 기후위기와 생태적 전환, 5) 과학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혁명, 6) 불평등의 극복과 경제정의 실현, 7) 한반도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 교회, 여기에 ‘제언 : 팬데믹 이후 미래세대를 위한 선교의 새 이름, 마음의 에큐메니즘’을 더하여, 총 여덟 개의 문서로 구성하였다.

7. 우리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향해 선언한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막 1:15). 긴급하고 절박하다! 그러나 이것은 우울과 절망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희망에서 나오는 환호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사 43:19) 주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으며, 기장의 <제7문서>를 세상에 내보낸다.

의제 1.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1) 복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나는 공교회를 믿는다(Credo Ecclesiam).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 것 같이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의 피조물이며, 성령이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이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교회공동체를 형성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보존·동반·통치되는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 세계의 역사가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진행된다.

하지만 이 세계는 자신의 곤경과 비참한 운명,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화해(고 후 5:17~8)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하나님과 이웃 인간, 자기 자신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이 세계사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는 교회는 이 역사에 참여하여 세상에 화해의 복음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명시적이며 의식적으로 증언할 임무를 갖고 있다.

2) 화해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화해 빛은 우선 교회공동체를 비추며, 그 안에서 변혁하고 갱신하는 화해의 능력을 일으킨다. 예컨대 '그리스도 찬가'(빌 2:5~11)는 빌립보 교회 내의 긴장에 적용되었고, 이와 유사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교회는 그때까지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를 가진 자유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이는 공동체, 곧 '에클레시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화해 복음을 전하는 화해의 교역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경계와 담을 무너뜨리는 일을 지향한다. 에베소서 2장은 이 주제를 장엄하게 숙고하면서 교회의 합법적인 질서의 대헌장을 구성한다(2:13~22).

바울은 이 화해가 세상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켜준다. 화해의 교역은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그 영향을 미쳐야 한다. 세상을 위한 화해의 교역은 그리스도의 화해 빛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을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의한 사고방식과 구조들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바르게 재구성함으로써 실제적인 화해와 평화 수립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화해 교역의 목표이다.

3)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공동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결합된 교회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위한 공동체로 존재한다. 교회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선 이스라엘에게(마 10:5이하),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로 파송된다.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하나님의 화해 행위에

서 밝혀진 세상에 관한 현실적인 지식, 곧 세상은 화해에 관해 무지하고 자신의 창조자와 이웃 인간,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갈등을 빚는 존재라는 지식을 기초로 세상과 대면한다. 둘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과(요 3:16) 연대적인 관계 속에 있다. 교회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분을 따라서 기꺼이 인간의 실존에 참여해야 하며, 동료 인간을 위해서라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롬 9:1~3). 셋째,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짊어진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파송되는 교회는 곤경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따지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구절에서 제시된 대답을 명시적으로 따르는 교회라 할 것이다. 이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 병들고 갇힌 자들 가운데 계신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듣는 교회,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곤경에 처한 이웃을 향해 선뜻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교회이기도 하다.

의제 2. 교회의 위기와 기장성의 지속적 실천

우리 교단을 비롯한 한국교회가 위기이다. 위기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교회 성장의 정체와 퇴보이다. 교인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고, 어린이와 청년층의 급격한 감소로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목회자 수급과 교회의 재정 안정성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 또 다른 위기는 신앙의 정체성 위기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추락하였고, 교회의 세속성과 배타성을 질타하는 사회적 비난과 냉소는 증가하고 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사회 선교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전도를 지속해야 한다. 교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은 어느 한쪽을 배제할 수 없는 차원의 유기적 관련성을 가진다.

1) 교회의 지속가능성

제1문서에서 제6문서까지 관통하는 신학은 ‘하나님의 선교’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영혼 구원이나 교회 확장과 함께 이 세상에 살롬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며,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과제이지만, 교인들의 신앙 정체성을 강조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각 세대별 교육을 통해 신앙 성장을 경험하도록 하는 일 또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선교하는 기관이며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고전 12:27, 엡 1:23), 부르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며(고전 1:2), 하나님 나라의 현존(눅 14:21, 벧전 2:9)이다. 교회는 자기 안에 평화를 이룸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롬을 가져오는 ‘빛’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는 공동체로 바로 서서, 세상을 온전히 섬기며 선교해야 할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체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예배의 온전성

교회는 예배공동체이다. 예배와 설교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수적이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산업화·도시화와 함께 성장과 부흥기를 경험하였다. 교회는 지치고 가난한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었으나, 한편 근면과 부의 축적을 독려하는 산업화·근대화 of 침병 역할도 하였다.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운동이 발전하고, 선진적·지성적 문명이 확산하면서 교회는 새로운 역할과 변화를 요청받고 있다. 교회는 물질문명의 고도화와 개인주의의 확대가 빚은 영적·정신적 공백을 주목해야 한다. 예배는 영성과 공동체성을 함께 추구하는 현장이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웃을 만나는 소중한 자리이다. '교회력'과 '성서 일과'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의 전통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고 깊게 할 것이다.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매일 기도'는 하루를 온전한 말씀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보이는 말씀인 성찬의 확대와 심화, 공간과 의식의 거룩한 상징화는 우리의 영성을 더욱 풍성하고 깊게 할 것이다.

강단은 말씀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자리이다. 문자에만 집착하는 근본주의 한계를 넘어, 말씀의 깊이와 성경의 본질에 집중하는 선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하는 것이 성경의 영감을 제한하지 않으며 오히려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일이 된다. 이단들의 침투와 거짓 교리를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 또한 같은 맥락에 있다.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성숙한 강단이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의 미래인 청년 선교를 강화하고, 청년의 필요에 부응하고 비전을 고취하는 예배와 교육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3) '기장성'의 지속적 실천

역사적으로 형성된 '기장성'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바리새적 신앙과 성경 문자주의를 극복한 복음의 자유 정신, 둘째, 하나님의 선교를 근거로 한 민주화운동, 민중운동, 평화와 통일운동, 생명운동 등 예언자적 사회참여 전통, 셋째, 세계교회와 한국의 여러 교단과 연대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다. 이는 우리 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며, 기장의 정체성이다. 이를 잘 계승하고 혁신해가야 할 것이다.

기장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중요성과 사명은 강조되어야 하고 사회참여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생명·평화·정의를 향한 외침은 모든 교회와 성도가 동참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사회적 언어를 신앙과 영성의 언어로 바꾸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상을 타하기보다 먼저 교회 안에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복지선교 또한 신앙의 든든한 토대 위에서 교회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복지선교의 운영이나 내용에서도 복음의 정신, 곧 교회의 영성과 사랑과 윤리가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의제 3. 차별 없는 사랑의 교회공동체

21세기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깊은 차별의 문화가 존재한다. 성경 정신은 온갖 차별을 거부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데 있고,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지적 능력이나 신체 능력이 탁월하거나 재물이나 출신이나 신분이 우월한 데 있지 않다. 인간의 존엄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데 있다(창 1:26~27). 따라서 신체적, 지식적, 물질적, 사회적, 환경적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롬 10:12)라는 민족 간 차별 철폐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갈 3:28)라는 선언을 통해 모든 장벽을 허물고 있다. 세계사는 자유와 평등을 확대해가는 역사이며 교회역사 또한 차별과 담을 허무는 방향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우리는 다섯 가지 항목으로 차별 없는 사랑의 교회공동체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여성 차별 : 우리 교단은 일찍이 여성 장로(1956년)와 여성 목사(1977년) 제도를 시행해왔지만, 2022년 교회 현황에 의하면 전체 장로 중 여성 장로의 비율이 10.9%, 여성 담임 목사는 3.9%에 불과하다. 전체 교인 중 여성 비율이 6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교단 내에 양성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교회 중직이나 중요 회의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해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강단이나 교회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적 언어와 여성 비하 발언, 성희롱과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교회는 양성평등을 이루어가는 현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주민 차별 :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50만 명, 해외에 흩어져 거주하는 한인 디아스포라는 750만 명에 달한다. 2020년 유엔 보고서는 전 세계 이주민 인구를 2억 8,200만 명으로 추정한다. 어느 민족이든 한때는 난민이요, 이주민이었다. 우리 하나님은 난민이요, 이방인인 하갈과 룛을 돌보시고 환대하시니(창 16:13, 룛 2:10~12) 분이시다.

민족주의나 배타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이기주의와 폐쇄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먼저 이주민을 향한 차별이나 혐오가 없어야 한다. 이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안정된 일터가 제공되어야 한다. 난민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 존중받고, 기꺼이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이주민은 우리 곁을 스스로 찾아온 세계인이며, 다문화사역은 세계를 향한 열린 창이다.

3) 장애인 차별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22년 기준, 26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이다. 누구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는 선택할 수 없지만, 장애인 차별문제는 선택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고질적인 장애인 비하 정서가 있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하

여 동정이 아니라 공감의 필요하고, 시혜가 아닌 예우가 필요하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혐오적 태도를 극복하고,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문제처럼 끌어안아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 물론, 장애인들에게도 동등한 교육과 적절한 직업이 가능하도록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 건물도 장애인의 출입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성숙함을 가늠하는 척도이고, 교회가 행하는 사랑의 깊이이다.

4) 세대 간 갈등과 연령 차별 :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그 대비가 부족하고, 고령층의 높은 자살률과 빈곤율이 우리의 현실이다. 은퇴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서도 강제 퇴출당하는 방식으로 오랜 노년의 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없다. 노년 세대를 위한 시니어(senior) 목회가 필요하고 여전히 노년 세대의 왕성한 활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개발되고 권장되어야 한다. 나이 드는 것이 미덕이 되고, 존중받는 일이 되도록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청년은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가진 미래사회의 주역이다. 그러므로 여러 중요한 의사 결정에는 반드시 청년이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총회, 노회, 교회의 회의에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또한, 청년의 창의적 도전을 후원하고, 실패나 실수에도 격려를 아끼지 않는 기성세대의 정서적 지원과 이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5) 그 외의 차별 :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다(마 10:42, 18:6, 10, 14, 25:40, 45). 사회학적으로는 이를 소수자(minorities)라 하는데, 수가 적고 사회적 힘이 없는 약자를 뜻한다. 소수자 범주는 다양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인종, 국적, 지역, 출신, 종교, 학벌, 연령, 성별, 결혼, 장애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적인 쟁점²⁾ 가운데에서도 차별의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도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인간사회는 몸과 같은 유기체이기에 잘라내거나 차별받아도 마땅한 소수자는 없다. 약한 지체일수록 더 요긴하고(고전 12:22), 다양성이 인정될수록 그 사회는 건강하고 평화롭다.

특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나라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자살률 문제이다. 우울증이나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지하고 후원하며, 외부의 공격이나 내적인 결핍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보호하는 돌봄의 목회가 필요하다.

2) 제108회 총회에서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논쟁이 되어 '성적인 쟁점'으로 바꾸었다.

의제 4. 기후위기와 생태적 전환

1) 기후위기의 현실

지구라는 행성의 지속가능성이 문제 되는 비상상황이다. 2022년 칼스루에 WCC 제11차 총회는 ‘우리는 시간이 없다. 이번 총회가 이 행성이 거주 불가능한 곳이 되지 않도록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절박한 선언을 하였다. 이미 우리는 폭우, 폭염, 폭설, 한파, 기근, 산불 등 매년 심각한 기상이변을 통해 기후위기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3년간 인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코로나19 사태는 산업화 이후 인류의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사용과 생태계 파괴가 기후위기를 넘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의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가 본격화된 1850~1900년보다 1.1℃가 높았을 뿐인데 남극과 북극의 얼음은 빠르게 녹아내리고, 바다 온도는 상승하여 세계 곳곳에 기후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때문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0% 가까이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이 없는 ‘순배출제로’(Net zero)를 이루어야 한다. ‘탄소 중립’은 우리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인류가 지속하는 한 탄소 발생을 없앨 수 없기에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탄소만큼은 탄소흡수원을 만들어 온실가스의 순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로는 가까운 미래(2040년 이전)에 1.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이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2) 기후위기 문제의 신학적 심각성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시 24:1).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창 1:31).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창 2:15).

지구라는 행성은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그 땅과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다. 자연의 난개발과 기후위기로 서식지를 황폐화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인간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을 남용하거나 방임한 죄에 해당한다. 지구는 마구 사용해도 좋은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간에게는 절제와 희생과 비움이 필요하다.

현재의 파괴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이 없다. 미래세대가 사용해야 할 자원을 앞당겨 소비함으로써 그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배출에도 불평등이 작용하고 있다. 부유한 나라나 부유층은 온갖 풍요로운 삶을 누리느라 탄소배출이 많아지는 반면, 탄소배출이 적은 나라와 가난한 자들이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 세계 인구의 10%가 부의 75%를 소유하고,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나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에 속함으로 기후위기의 해소를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의 기조도 이제는 성장만이 아니라, 공존과 생명의 충만함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한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엡 4:6).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해 인간과 자연, 생명과 생물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기후위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태적 전환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창조 세계의 온전성을 회복하고, 지구라는 온 생명이 조화롭고 충만하게 살기 위해서는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3)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적 과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제안과 실천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 : 기존 화석연료 사용 제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원자력 에너지는 그 대안이 아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여야 한다. 교회나 가정에도 태양광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 개인과 교회의 탄소배출제로 운동 : 이의 실천 방안으로 자동차운행 절제하기, 여행 자제하기, 전자제품 사용 시간 줄이기, 교회의 냉방 온도는 높이고 난방 온도는 낮추기, 온라인 회의 확대하기, 종이 없는 회의 확산하기, 문서의 디지털화, 교회의 탄소배출 점검표 작성 등을 제안한다.
- 육식위주 문화에서 채식위주 문화로의 전환 : 가장 유해한 온실가스인 메탄은 가축 사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다. 농업 및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아마존 등 밀림 지역의 삼림이 파괴되기도 한다. 채식은 생태문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양식이다. 전 지구적으로 식품의 생산과 운송, 보관, 폐기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어 이동성이 큰 글로벌푸드보다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것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다.
- 덜 쓰고 더 오래 쓰고 재활용하는 방식의 생활화 : 음식 소비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줄이기, 종이와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옷 오래 입고 수선하여 입기, 교회의 재활용센터와 녹색가게 운영 등을 제안한다.
- 녹색 환경 조성하기 : 숲과 텃밭과 정원 만들기, 교회 건물과 장식의 검소화와 단순화,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의 사용을 절제하고 친환경제품은 지원하기, 에너지협동조합·생활협동조합·소비자협동조합과 같은 생태와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제안한다.
- 생태교육과 환경주일 지키기 : 교회는 생태교육을 일상화하고, 환경주일, 기후정의주일, 창조 절기를 지키며, 세상을 창조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를 실천한다.

의제 5. 과학기술의 발전과 디지털혁명

인류 문명은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며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고, 현재는 컴퓨터, 인터넷, 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본주의적 대량생산 체제를 열어 인간의 무한 욕망을 실현하고 호모 사피엔스의 전 지구적 지배를 공고히 하였다. 최근의 디지털혁명은 사물의 디지털화, 빅데이터와 정보처리 능력, 빠른 연산과 통제 능력을 기반으로 비물질성, 비대면성, 초연결성, 정밀 통제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교회는 물질문명에 상응하여 영적 존재인 인류에게 필요한 영성과 윤리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인간의 뇌나 정신 작용과 유사한 디지털혁명은 신앙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인간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기에 이에 대한 신앙적 지침이 시급하다.

1) 과학기술과 신앙

하나님은 세상과 우주를 섭리해 가시되 이성을 제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확고히 믿는다. 창조의 과정과 자연의 질서를 성경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신비 영역에 속한다. 인간은 과학과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신비를 하나씩 밝혀 가다가 마치 우주라는 광대한 해변에서 조개껍데기 하나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아이와 같다. 빅뱅이론, 천문학, 양자물리학, 진화론, 뇌과학 등은 하나님의 창조 신비를 드러내고 자연질서의 감추어진 영역을 밝혀 가는 과정이다. 이성과 합리성은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일부로 신앙과 배치되지 않는다. 다만 그 합리성에 취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함부로 재단하는 태도는 이성의 한계를 넘은 교만임을 밝힌다.

2) 과학기술의 사용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 생명을 안전과 건강으로 이끌었다. 과학기술이 낳은 풍요와 편리성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였다. 그러나 자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창 1:28)은 이 땅의 피조물과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지킬 책임을 주신 것이지 착취나 남용이나 폭군적 다스림이 아니며 권력과 지배를 섬김과 희생으로 바꾼 예수님의 정신(막 10:42-44)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인간은 이제 자연 만물을 섬김의 마음으로 대하여야 한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왜곡하여 지구라는 '온 생명'을 무자비한 탐욕으로 남용하고, 이로 인한 기후위기는 과학기술을 오용한 결과이다. 과학기술은 인간 개체를 넘어, 지구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과 생명체의 안전과 생명의 풍성함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고 절제되어야 하며 과학기술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3) 디지털혁명과 인간소외

디지털혁명의 이익은 편리성과 연결성에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 손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만남을 다양화하고 확장한다는 점에서는 유익하지만, 자

첫 디지털 문화가 직접적 만남의 회피 수단이 되거나, 무감각한 인간을 양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영’(요 4:24)이시며 ‘생명의 말씀’(요 6:63)이다. 디지털혁명이 인간소외로 나가지 않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도구가 되도록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정보는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통제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나 기술은 불평등 없이 균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과 정보는 국가나 사회나 교회 단위에서 모두에게 개방되고 적용되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효과적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기술이 편의성과 생산성을 이유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게 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기술이나 로봇 관련 세금 등을 신설하여 그 혜택이 소수에게 몰리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균등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이 자체 발전의 논리로 나가게 해서도 안 되고 사회적 견제 장치를 두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통제 능력을 벗어날 우려가 있기에 핵무기의 등장 때처럼 신중해야 하고, 그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4) 디지털혁명과 성육신 신학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요 1:14)는 성육신 신앙은 ‘인간 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인간 됨은 인간의 몸인 물질성을 존재 근간으로 한다. 디지털혁명 시대에도 교회는 오히려 인간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는 비대면이 강조되었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디지털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예배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참여해야 하고, 성만찬 역시 함께 예수의 몸인 떡을 먹어야 하며, 사랑의 나눔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있을 때 풍성해진다. 디지털의 비접촉성(untact)은 인간을 소외시키고 무감정적 존재로 만들 우려가 있다. 만남과 접촉만큼 인간의 영혼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없다. 몸을 떠난 영성은 불완전하고 허무하다. 인간성의 강조가 디지털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다.

의제 6. 불평등의 극복과 경제정의 실현

1) 하나님의 정의와 경제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 관점에서 인간사회 안에서 이뤄져야 할 온전한 관계와 그에 따르는 경제생활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 정의는 억압받는 백성을 해방한 하나님의 신실한 행위를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야 할 공평함을 뜻한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정의를 이뤄야 한다는 정신은 율법과 예언의 요체이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눅 6:20). 예수의 이 선언은 그 정신을 집약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당한 몫은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어떤 경우이든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만나 이야기(출 16:16-20), 주의 기도(마 6:9-13, 눅 11:2-4), 포도원 주인의 비유(마 20:1-16), 최후 심판의 비유(마 25:31-46) 등은 그 정신을 함축하고 있다. 하나님의 정의는 노동의 업적과 무관하게 삶의 필요를 따라 재화를 나누는 것과 부합한다. 그것은 배

타적인 부의 축적을 거부하고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것을 뜻한다.

2)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경제민주화

한국 사회는 놀라운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자본의 지구화와 더불어 나타난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 양상은 더 극단적이다.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동안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분배정책 및 복지제도 대신에 성장으로 인한 고용효과에 의존해 왔다. 그 까닭에 새로운 경제 여건 가운데서 심화하는 불평등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산업 구조의 개편,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 위기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더 심화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방안으로서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여 경제주체 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면서도 적절한 소득분배를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 조화와 균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자본과 노동의 균형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기왕의 자산 불평등에다가 소득 불평등까지 한국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의 균형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여기에서 절실한 과제는 노동권의 완전하고도 실질적인 보장인데 현재로서는 노동의 위기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의 빈번한 산업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여성과 이주민 노동의 저임금화 현상은 여전하다. 누구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기 적절한 노동과 직업, 그에 따르는 적절한 소득에 만족감을 보장받고,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한국형 복지체제의 형성과 기본소득

사회적 불평등과 가난의 문제는 모든 문명사회의 관심사이다. 오랫동안 인류사회는 절박한 필요에 따른 공공부조의 원리로 그 문제를 해결해 왔다.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하면서 업적주의에 따른 보상의 원칙이 확립되었고, 그것은 사회보험의 형태로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하는 그 제도는 오늘날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복지제도와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 사회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기본소득제를 이와 결합함으로써 고유한 복지체제를 갖출 수 있다. 기본소득제는 배타적인 소유나 사적인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유자산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몫을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제도적 방안이다. 공유자산은 토지와 천연자원 및 생태환경을 포함한 자연적인 자산, 역사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문화 등 역사적인 자산, 오늘날 플랫폼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정보자산 등을 포함한다. 기본소득제는 불평등한 물질의 분배구조를 재편하고 자연의 무분별한 약탈과 상품화를 억제하며 인간의 노동을 상품화하려는 시장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태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대안적 경제 질서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공정한 세제의

확립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동반하여야 한다

4) 불평등 극복을 위한 교회의 실천

불평등의 극복은 사회적 과제일 뿐 아니라 교회의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의 정신(고전 12:12-31)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는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현실을 우리는 엄중히 직시하고 회개하여야 한다. 교회 규모에 따른 차이, 도시와 농촌 등 지역에 따른 차이는 사회적 불평등보다 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사회에서 수용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나 공정거래 등과 같은 규범마저 교회에서는 무색할 정도로 개교회별 성장전략에만 내맡겨져 있는 형국이다. 기장은 '최저생활보장제' 같은 선구적 제도로 교회 간 불균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노력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여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목회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제도, 도시교회와 농촌 교회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교회는 불평등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헌신하여야 한다.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교회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헌신해온 하나님의 선교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의제 7. 한반도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 교회

1) 평화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교회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마 5:9). 교회는 평화를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화해자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 분단 구조가 평화의 걸림돌임을 자각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교에 주력해 왔다. 기장은 시대마다 상황에 응답하는 선교정책을 천명해왔으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해'라는 시급한 안건을 선교과제로 확인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실천해왔다.

2)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평화 연대

'동북아시아평화와정의협의회'(도잔소프로세스, 1984년)를 비롯한 세계교회(WCC)의 기도와 연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출발점이자 활력소였다. 한국교회(NCCK)는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88선언)을 통해 교회와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에 희망을 불어넣으며 평화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88선언은 2013년 부산 WCC 제10차 총회가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에도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틀을 제공했다. 기장은 평화·통일의 선교과제를 위해 '평화공동체운동본부'(2004년, 89회 총회)를 조직하고, 도잔소프로세스를 확산하고 실천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에큐메니컬 포럼'(EFK) 창설을 이끌어낸다. 또한, WCC 총회 현장에서 전 세계교회와 함께 '평화통

일 월요기도회'를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했다. 기장은 항상 이 일에 선구적 역할을 감당해 왔음을 자부한다. 칼스루에 WCC 제11차 총회(2022년)는 다시 한번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의정서'를 채택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적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다.

3)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한 평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맞물려 군사력 증강, 핵과 군비경쟁, 군사훈련 등으로 대결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분단 고착은 더욱 심화하여, 동북아 전체의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남북 갈등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분단의 심리가 사회 곳곳에 누적되어 남북갈등의 양상이 심각하다. 한국교회는 반공주의 이념의 포로가 되어 평화의 일꾼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인 사랑과 용서, 하나 됨과 평화를 실천하지 않고 증오와 차별, 폭력과 분열의 길로 가고 있다. 교회는 평화의 일꾼이라는 본분을 다시 확인하고 분단 신앙이 아닌 평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평화 가치에 따른 평화교육이 교회 안이나 밖에서 계속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평화를 위한 교회의 실천

〈제5문서〉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세계의 평화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교공동체'라고 선언하였다. 이 고백에 맞추어 우리 교단은 2014년 사순절부터 매주 '평화통일월요기도회'를 열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호소와 그에 따른 실천을 해 왔다. 잠정적 전쟁 중단 상태를 의미하는 정전협정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제103회 총회의 결의에 따른 '화해와평화의교회' 설립과 건축은 우리의 열망과 고백을 담은 평화의 터전이 될 것이다. 제106회 총회(2021.9)에서는 '북에 두고 온 재산권 포기'라는 기념비적인 선언을 하였고, 이 일에 캐나다연합교회가 함께 참여했다.

5)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평화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나 열망은 갈수록 떨어져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젊은 층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오랜 분단으로 인한 피로감과 민족 공동체성의 상실은 한 원인이다. 통일은 더 이상 가슴 뜨거운 이슈가 아니다. 반면에 평화의 이슈는 여전히 관심이 높는데, 이는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WCC 선언문에서 제시한 반전운동, 생명 보호를 위한 핵 반대 운동, 인간 존엄으로서의 북한 인권문제,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비무장지대의 평화구역으로의 전환 등은 젊은 세대에게 인권과 평화운동으로써 충분한 공감대 얻을 것이며 통일은 평화를 일구어 가는 과정에서 주어질 선물이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통일은 주변국 중 어느 국가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한반도 통일문제는 한반도 차원에서만 해결될 수 없고, 동아시아와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가능함을 의미한다. 중국의 팽창주의와 일본의 국가주의, 여기에 더하여 미국의 패권주의가 위협스럽게 한반도 주변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홍콩, 대만, 대한민국과 북조선의 뜻있는 시민과 교회가 함께 하는 평화 연대가 필요하다.

6) 평화를 위한 과제와 우리의 실천

평화가 위협받는 한반도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 과제를 제시한다.

- 남북한은 지난 70년 넘게 지속해 온 군사력 증강과 핵과 군비경쟁을 당장 멈추고 평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
- 대북 경제제재는 비핵화와 정권교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오히려 북한 주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대북 경제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1953년에 맺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휴전선을 따라 길게 형성된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와 생태보전지대로 전환해야 한다.
- 우리 기장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주일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 지속적인 투쟁과 연대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 제반 시민과 교회와 함께 연대하여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과 폭력을 몰아내고, 동아시아와 세계를 평화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한다.
- 우리 교회와 사회에 깊게 드리운 '마음의 38선'을 제거하기 위한 평화교육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소통과 고백, 화해와 용기, 돌봄과 헌신으로 '평화의 마음'을 건설해 나아가야 한다.

제언 : 팬데믹 이후 미래세대를 위한 선교의 새 이름, 마음의 에큐메니즘

1. 오늘 교회의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사건이 휩쓸고 간 자리이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개되었던 팬데믹 상황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깊은 반성과 회개, 그리고 전향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라는 칼스루에 제11차 WCC 총회(2022년) 주제는 이러한 시대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다.

2.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룩한 수직적인 사랑이면서 동시에 이 사랑은 세상을 향한 수평적 차원으로 작용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존재의 자기다움을 발현하지 못해 고통당했던 실존들의 마음을 살피고 보듬는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성경 앞에 선 다양한 존재들의 아픔과 마음을 감싸 안을 수 있다. 자유, 해방, 정의 같은 거대 담론보다 존재, 하나하나의 미세한 소리와 몸짓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WCC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

스도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채택했다. 세계교회는 치유와 용서, 화해와 일치가 구체적인 실존과 마음의 차원에서 작동되는 방향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이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그 결과 '마음의 에큐메니즘'(An Ecumenism of the Heart)이 미래세대를 위한 선교의 새 이름으로 등장하였다.

3. '마음의 에큐메니즘' 등장은 성경 해석학 분야의 최근 동향과도 관련이 있다. '성경 뒤의 세계', '성경 안의 세계'를 읽어내려는 시도 못지않게 '성경 앞의 세계'를 읽어내려는 노력이 중요해졌다. 성경이 형성된 배경과 역사에 대한 이해나 성경의 절대성과 객관성은 지금도 성경해석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가 처한 상황과 마음, 즉 '성경 앞의 세계'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텍스트 앞에 서 있는 다양한 실존들이 텍스트 해석의 주역이다. '마음의 에큐메니즘'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과 마음을 다해 그의 자비하심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는 이웃들과 기후변화로 고통을 당하는 창조세계를 향해 예수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4. '마음의 에큐메니즘'은 현대성의 핵심어인 타자성과 일치를 보인다. 마음은 사회적 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나 그렇다고 사회적 현상 안으로 전부 담기지는 않는다. 여기서 마음의 문제는 내 안에 있지만 나도 모르는 어떤 것, 즉 타자의 문제와 만난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장하는 소외의 문제는 권력과 자본에 의해 배제되는 존재들, 타자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동일성으로 포섭되지 않고 배제된 존재가 타자이다. 그래서 타자론에는 결핍과 잉여가 동반된다. 주변부란 이 결핍과 찌꺼기가 부유하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타자의 현존으로 인해 나의 행동에 문제 제기가 일어나는 것이 '윤리'이고, 교회는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될 때 진정한 교회로 세워진다. 이것이 '마음의 에큐메니즘'이 등장하게 되는 사상적 배경이다. '마음의 에큐메니즘'은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지나쳤던, 마땅히 목소리를 듣고 반응했어야 했던 타자들을 향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회개의 발로이다.

5. 인간은 저마다의 역사와 문화, 성과 인종과 계급, 지역과 세대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실존적 상황에 놓이기 마련이다. 이를 하나의 도덕과 도그마로 묶을 수 있다는 믿음은 환상이고 이데올로기다. 1990년대 이후 출생한 포스트모던 이후의 세대들, 1997년 IMF를 지나면서 태어나고 성장한 이들에게 이전과 같은 단일한 선교전략, 일방적 복음, 시대와 호흡하지 못하는 선교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발길을 끊게 만드는 요인이다. 우리는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미래교회의 주역인 젊은 세대를 위한 선교적 방향 설정을 놓고 고민하였다. 또한, 팬데믹에 대처하는 세계교회의 흐름과 동향에도 주목하였다. 이런 여정의 끝에서 팬데믹 이후 미래세대를 위한 선교의 새 이름으로 '마음의 에큐메니즘'을 제안한다.

6. 본 <제7문서>는 팬데믹 이후, 변화된 세상을 향한 선교적 제언이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서 현재의 위기를 냉철하게 바라보면서도, 변화를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를 연결하고, 층만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또한, 인간과 다른 피조물, 우리와 이웃 사이의 벽을 허물고 하나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연합의 역사를 믿는다. 타자는 다른 인간을 넘어, 인간종이 아닌 동물과 식물 그리고 지구촌 생태계를 아우른다. 우리가 증언하는 그리스도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엡 4:6) 우주적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는 화해의 성령이 이끄는'(행 2:1-13) 평화 공동체이다.

7. 하나님 나라는 현실에 뿌리박지 않은 미래로부터 오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름 모를 나그네들의 마음을 살피고 모든 피조물을 포함한 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을 지는 동시에 기도와 헌신이 있는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현장에 존재한다. 기장의 지난 70년 새역사가 그것을 보증했고, 앞으로 70년의 역사 역시 이 기장성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보장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사 43:19)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미래를 향한 선교의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다.